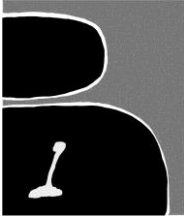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1 월 첫째주 : (을미년 정초기도) 양력 1 월 1 일 목요일-1 월 4 일 일요일

2 월 첫째주 : 초하루 기도 및 인등기도

셋째주 일요일 11 시 : 전법기도 법회 및 찬불가 배우기

☺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 시 법회

☺ 붓다나라 한국 후원회 - (붓다회)

“미국 붓다나라 한국 후원회 (붓다회)”에서 함께 배우고 정진과 더불어 봉사를 할 봉사단원들을 기다립니다. 붓다회나 미국 부다나라로 연락 바랍니다. Daum 카페: 한국붓다회

☺ - Buddha's Disciples Zen Meditation -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St. Louis Buddhanara Temple	Atlanta Buddhanara Temple
☺ Every Saturday 9am.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 Every Tuesday 6:30 pm: Evening Chenting & Meditation	☺ Every Tuesday 6:00 pm -TBA
☺ Intensive Meditation 7:00 PM – 10:00 PM: Fourth Tuesday of the Month	Meditation for the Beginner

이달의 법구경

필요 할 때 돕는 친구 있는 것
즐거운 일이고,
죽기 전 선행 하는 것
즐거운 일이고,
모든 고통 떨쳐 버리는 것
즐거운 일이네.

It is sweet to have friends in need;
and to share enjoyment is sweet.
It is sweet to have done good before death;
and to surrender all pain is sweet..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붓다나라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당: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당 : 2197 Gravel Springs Rd. Buford, GA 30519

☎ (770) 945-5345

“불우한 이웃 살피는 동사섭 행하자”
조계종 진제 종정예하 2015 년 신년법어

조계종 진제 종정예하가 오늘(12 월 22 일) 오전 불기 2559(2015)년 을미년을 앞두고 불자들과 국민들에 신년법어를 내렸다. 진제 종정예하는 “동서고금 모든 성인들의 고구정녕한 가르침은 시와 비를 떠난 중도의 인성도야”라며 “만유가 나와 더불어 한 몸임을 깨닫게 되어 모든 시비와 갈등, 욕심들이 사라지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 사랑과 평화를 누리자”고 강조했다. 이어 종정예하는 “새해에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자”며 “지구촌의 모든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보살피는 동사섭(同事攝)을 행하자”고 당부했다.

乙未年 新年 宗正法語

새해에는 인성도야에 힘쓰시다

지혜로운 이는 고행을 행함이나 어리석은 이는 고생을 한다 했습니다(智者苦行 愚者苦生).

고행은 다른 이를 배려하는 利他心(이타심)의 발로이나 고생은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利己心(이기심)이라 하겠습니까.

온 나라가 斷腸(단장)의 아픔으로 點綴(점철)되었던 한 해가 가고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해에는 화합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고 화합을 이룹니다(智不責愚).

오늘날 지구상에는 화합이 그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인류의 희망과 앞날이 여기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대중의 화합을 승가의 으뜸가는 첫째 덕목으로 삼으셨으니, 화합에는 忍辱(인욕)이 第一道(제일도)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인성도야에 힘쓰시다.

우리는 내일보다 내생이 먼저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잊고 삽니다. 三毒(삼독)과 五慾(오욕)에 가로막혀 그림자 같고 꼭두각시 같은 일에 골몰하여 허송할 수 없습니다.

東西古今(동서고금) 모든 성인들의 고구정녕한 가르침은 是(시)와 非(비)를 떠난 中道(중도)의 인성도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성도야를 이루겠습니까.

나라는 헛된 망상을 뿌리 채 뽑아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가?”하고 이 화두를 들고 간절히 의심해 가는 것입니다.

간절한 화두의심 한 생각으로 온갖 분별망상이 다 재(灰)가 되어 참나를 깨닫고 나면, 만유가 나와 더불어 한 몸임을 깨닫게 되어 모든 시비와 갈등, 욕심들이 사라지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새해에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시다.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 같이 말씀하신 계는 “악행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행하지 말 것이며, 선행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반드시 실천하라(諸惡莫作 衆善奉行)”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멀고 가까운 곳을 떠나 同體大悲(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이웃의 고난과 비애를 들어주고 고통을 대신하여 애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구촌의 모든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보살피는 同事攝(동사섭)을 행하도록 합시다.

한결같은 바람으로 올해에도 한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염원합시다.

특히 올해에는 국가와 불교계가 다 같이 합심하여 ‘세계평화대회 및 세계고승무차선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래부터 형제자매였던 우리의 염원이 꽃을 피운다면 더 없이 좋은 시절인연이 성큼 도래하여 太平聖代(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세계 속의 으뜸가는 일등선도국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아 온 인류에게 진리의 한 마디를 선사하고자 하오니, 잘 받아 가지셔서 값진 을미년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眞金若不經爐冶(진금약불경노야)면
爭得光華徹底鮮(쟁득광화철저선)리요.

진금이 화로를 지나지 않으면
어찌 빛이 나고 철저히 고우리요.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眞際法遠

‘한국불교 어디로 가야하나’ - 강백의 대화 무비스님 vs 지안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화엄전 주변을 함께 거니는 한국불교의 강백을 상징하는 무비스님과 지안스님.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1700 년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도 새로운 해를 시작했다. 민초들과 고락(苦樂)을 같이한 한국불교는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의 원력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 우리 시대의 대강백으로 존경받는 무비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과 지안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이 ‘한국불교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두 스님은 “감동을 주는 불교, 시대와 호흡하는 불교가 돼야 한다”며 수행정신 회복과 희망을 주는 한국불교라는 좌표를 제시했다.

道 이루기 위해 밥 먹는데 왜 찬이 화려하나

무비스님=응병여약(應病與藥). 병에 따라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부처님도 중생을 위해 헌신하고 가르침을 전했다. 불교는 사회 현실과 시대 사조(思潮)를 가장 먼저 읽어야 한다. 그래야 중생의 아픔과 실상을 제대로 알고, 대처할 수 있다. 의사는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불교는 시대에 뒤떨어져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불교는 사회 현상을 직시하고, 거기에 맞는 부처님 방안을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한다고는 하지만,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한국불교 특히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변화가 더디고, 구태의연하다. 건강한 생각을 갖고 정진하는 수행자들이 많음에도,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안스님=공감한다. 불교는 우리나라 종교 가운데 역사가 가장 오래됐지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서는 미미하다. 불교 위상에 걸맞게 능동적이고 다각적으로 활동 분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을 사람들이 불교 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 불교가 사회 활동을 원만히 하고, 이 시대 사람들의 생활공간에 불교가 들어가야 한다. 한국불교는 여전히 구태의연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요즘은 반야(般若)도 ‘반야방편(般若方便)’이라고 할 만큼 한국불교는 방편을 잘 써야 한다. <벽암록>에 나오는 ‘간풍사범(看風使帆)’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바람을 보고 돛을 조종해야 배가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의미로 방편을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말이다. 지금의 한국불교가 귀담아 들을 내용이다. 한국불교는 현실을 직시하는 ‘각성의 눈’을 가져야 한다. 무비스님 말처럼 약을 주지는 못해도, 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줘야 하지 않겠는가.

무비=40~50 년 전에 비해 지금의 한국불교는 차이가 많다. 사회도 변했고, 불교집안 분위기도 바뀌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많다. 예전에 절 생활이 어려웠지만, 오히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행도 잘 했다. 지금보다 양심적이었다. 주지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중이 주지를 뽑으면, 다음날 주지가 도망가는 일이 많았다. 수좌들은 선방에 방부를 들이면서 ‘공양주를 시켜주면 이 절에 살고, 안 시켜주면 다른 절로 가겠다’는 조건을 달기도 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가. 지금의 스님과 불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가치관이 변했다. 요즘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겠지만, 수행에 대한 가치가 바뀐 게 현실이다. 수행의 원력을 세우고 절집에 들어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안=맞다. 70 년대만 해도 수행풍토가 그랬다. 그때는 살림이 어려워 학인들이 고생하면서 공부했다. 먹을 게 부족해 밭에서 무를 뽑아 계곡물에 씻어 먹기도 했다. 그렇지만 수행과 공부만큼은 철저하게 했다. 지금의 한국불교는 수행정신이 쇠퇴했다. 오늘날 불교뿐 아니라 종교가 너무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어 걱정이다.

부처님 법은 출세간(出世間) 법이다. 불법(佛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본분이다. 예전에는 서로 주지를 안 하려고 도망까지 갔는데, 요즘은 서로 하려고 한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무비=나도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차이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수행의 관점에서 한국불교를 보면, 그 정신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안=앞으로 한국불교가 시대를 바로 보고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개신교나 가톨릭 등 다른 종교의 내부는 잘 모르지만, 불교계 안을 살펴보면 수행 정신이 가장 많이 퇴보했다.

출가한 스님들은 수행자로 부처님 법에 의지해 평생 살아야 하는데, 안타까운 모습이 자꾸 나타나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공업(共業)으로 돌려 말하기도 하는데, 그에 앞서 개인이 각성해야 한다.

무비=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감히 못한다. 상고시대 사람들이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수행을 빼고 한국불교를 진단할 수 있겠는가. 수행의 틀과 정신을 계승하면 세상의 모범이 되고, 세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텐데, 지금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됐다.

사실 불교인의 범위를 보면 승가는 극히 작은 부분이고, 재가의 비중이 더 크다. 그럼에도 승가를 우선 말하는 것은 숫자는 적지만 불교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승가는 큰 나무의 줄기이고, 재가는 가지와 열매에 해당한다. 승가가 불교 중심에 있으니, 숫자는 적어도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줄기가 반듯하게 서고, 건강해야 가지에서 열매도 맺고 꽃도 피우는 것이다. 그러니 우선 승가가 잘 하도록 짚어야 한다. 승가는 개인 수행도 중요하지만, 재가를 위하고 사회와 민중에게 눈을 돌려 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안=부처님 법(法) 자체를 놓고 볼 때 문제는 없다. 그러나 경전에도 나오는 것처럼, 말법(末法)이라는 말은 중생의 근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수행에 임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지 불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불교는 인류사회의 빛이 되는 탁월한 교법(敎法)이다. 한국불교의 승가나 재가가 침체 현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시대를 계도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것은 부처님 법이다. 그런 면에서 불교에 의지해 새롭게 분발심을 일으켜야 한다. 종단이나 한국불교의 표면에 나타나는 문제를 보고 ‘불교가 왜 그러느냐’고 비판 받는데, 부처님 법 자체는 이상이 없다. 비록 지금의 한국불교가 진통을 겪고 비판을 받지만, 이럴수록 불교인은 항상 부처님 법에 의지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승가교육도 전통체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과거의 승가교육 전통 정신을 계승하면서, 승가교육의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종단에서 교육과 역경(譯經)을 중요한 사업으로 삼는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재가자들의 지적 수준도 높아진 만큼, 재가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도 있다.

무비=승려교육의 현대화 필요성에 대해 수차 들었다. 승가교육의 전통은 강원(講院)에서 한문 원전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요즘은 일반인들이 원전을 더 공부한다. 불전 강의에 스님보다 일반인의 참여가 높다. 만약 나에게 체계를 세우라고 하면 스님들은 한문 중심의 경전을 공부하고, 다수의 신도들은 번역 중심의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원교육은 전통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지안=종단의 승가교육 개편은 강원에 입학한 초심자들이나 사미과 학인들의 학습 효과를 돕기 위해 개론서로 공부한 후에 한문경전을 익혀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두됐다. 스님들의 기본교육기관 커리큘럼 문제였다. 그런데 이걸 내세우다 보니, 강원이 옛날식 과목을 폐지하고, 새로운 개론서를 공부하는 게 능사라는 오해가 생겨 혼란스럽다.

대담은 시종 힘차고 진지했다. ‘무슨 생각일까’ 지안스님의 말씀을 듣는 무비스님의 표정이 시선을 더 집중시켰다.

무비=강원(승가대학) 1학년에서는 원전을 3분의 1로 하고, 차츰 늘려 끝내 원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님이 사찰 주련(柱聯)조차 읽고 해석하지 못하면 어찌 되는가. 신도들의 수준이 높아져 주련을 새기고 토론하는 상황이다. 문제 아닌가. 교육은 스님이든 재가자든 야무지게 해야 한다.

은혜사승가대학원은 일요일에도 강의를 했다. 음력설은 빼고 쉬는 날이 거의 없었다. 공부하는 사람이 휴일을 찾아야 되는가. 불교의 공부는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에 진단해 본다. 근래 사찰음식과 산사음악회가 대유행을 하는데, 뒷방 노장 입장에서 보면 재고해야 한다. 지금의 사찰음식은 궁중요리일 뿐이다. 조선시대 궁궐에 살던 상궁들이 절에 오면 따라온 시종들이 음식을 만들었다. 그것이 전해와 사찰음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찰음식은 1식 3찬이 원칙이다.

옛날 절집 부엌에는 금연(禁煙)이라고 붙여 놓았다. 조실이나 주지도 공양시간에 놓치면 공양할 수 없었다. 왜냐면 물 한 그릇 데우려고 해도 나무를 때야 하는 번잡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 아닌 때에 불을 때지 말라고 부엌에 ‘금연’이라고 붙여 놓았다. 이처럼 불교의 식생활 전통은 엄격했다.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는 ‘불비시식(不非時食)’이 계율에 있다. 수행자는 도(道)를 이루기 위해 밥을 먹는 것이다. 그런데 화려한 사찰음식을 선보여 세인들도 깜짝 놀랄 정도이다. 산사음악회도 그렇다. 사미십계(沙彌十戒)에 ‘불가무창기불왕관청(不歌舞倡伎不往觀廳)’ 즉 ‘노래하고 춤추는 데 가서 구경하거나 듣지 말라’고 했다. 계율이 이러하데 공개적으로 산사음악회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 불법에 어긋나게 절에 무대를 차려놓고 산사음악회를 하는 것을 어찌 이해하겠는가.

지안=불교에서 행사를 이벤트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벤트에 관심을 기울이면 천박한 자본주의에 편승하는 세속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교의 모든 행사는 여법(如法)하게, 즉 부처님 법도에 맞게 해야 한다. 너무 세속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산사음악회에 대해서는 무비스님이 지적한 대로 다른 스님들도 많이 느끼고 있다.

무비=최근 불교계에서 이웃돕기를 많이 한다. 바람직한 일이지만 정부나 사회단체와 다른 종교에서 하는 복지와는 달라야 한다. 불교 정신을 담아야 한다. 물론 봉사는 그 자체도 고마운 일이지만, 지상의 최고급 종교인 불교가 다른 데와 똑같이 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지안=사람을 평할 때 인간성이 순수하다는 것을 칭찬하는데, 종교도 종교 자체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다. 부처님 가르침이 순수한 불교 그 자체의 모습이다. 불교가 너무 세속적인 방편을 쓰면 문제다. 주ichi 측에서는 이유가 있겠지만, 비불교적 모습을 드러내면 불교의 순수성이 흐려지고 상실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 그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있는 것이다. 거기에 맞춰 순수한 모습을 유지 보존하는 것이 진짜 전통이다.

무비=오늘의 주제를 ‘순수불교, 전통불교 회복’이라고 하고 싶다. 시류에 편승해서 하는 것은 서툴기만 할 뿐이다. 지안=대승에서 보살은 이타원력(利他願力)을 세웠고, 사무량심(四無量心)을 실천했다. 그 가운데 자비희사(慈悲喜捨)의 네 번째는 ‘버릴 사’자이다. 종교인들은 공명심(功名心)을 버려야 한다. 집착과 공명심을 갖는 것은 진정한 사무량심이 아니다. 불교만큼 집착을 버리라고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있는가. 집착심, 공명심, 업적주의는 비불교적이다. 또한 중도(中道)를 이야기하는 불교가, 사회에 갈등이나 대립이 발생했을 때 한편만 들면 안 된다.

무비=물론 포교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산사음악회를 시도한다는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입장보다 순수불교를 회복하는 방향이 진정한 포교이고, 불교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짜 포교이다.

지안=순수한 불심(佛心)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허망하고 헛된 생각, 마음에 바람이 들게 하는 것은 포교와 거리가 있다.

무비=이 시대의 이상적인 불교 모습은 대만불교라고 생각한다. 대만 스님들은 봉사하고 헌신하며 술선수범한다. 재난이 일어나면 그 어떤 단체나 기관보다 앞장서 구호한다. 승복이 흙투성이가 되도록 나서는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놀라고 감동한다. 대만 사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관청이나 국민들이 아무 조건 없이 나서 돕는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이다. 감동을 주고 마음을 돌려놓아야 포교가 된다. 말만 번드르하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지안=대사회적 기능을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포교 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포교의 효과가 나타나야 포교다. 학교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포교를 해야 한다. 포교를 빙자해 사법(邪法)이나 비불교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일반인들이 감동하지 않는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포장을 잘 하여도 본질이 어긋나면 안 된다. 불교는 출세간법으로서 세간법을 다스리는 것이다. 세속의 본을 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고루한 것이다.

무비=재난 구호나 이웃돕기 등 구호 활동을 통해 감동을 줘야 한다. 말만 갖고는 안 된다. 그렇다고 사람만 많이 모으는 것이 포교는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지금 어둡고 힘들고,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얼마나 많은가.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연탄을 때는 어려운 이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불교계에서 연탄을 다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면 세상은 감동할 것이다.

대만의 ‘살아 있는 관음보살’로 불리는 자제공덕회의 중엄스님이 있다. 그 스님은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대만과 본토에 병원을 세웠다. 불교의 가르침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감동을 주는 종교라는 인식이 생겼고, 지금은 자원봉사자가 700 만 명이 등록돼 있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이처럼 어찌 보면 포교는 간단하다. 감동이다. 이에 비해 한국불교는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무슨 포교가 되겠는가.

지안=다종교사회에서 불교나 기독교 등 종교도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쟁 한다. 그런데 불교는 젊은 층이 소멸하는 위험한 상황이다. 대불청이나 대불련의 활동이 미미하다. 각 교구본사에서 대학의 불교학생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국 사찰에서 청년회나 대학생회 육성 예산을 책정해 능동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이 또한 감동을 주는 일이다. 박영병 부산교수불자연합회장은 불교학생회 활성화를 위해 사비(私費)를 들여 2 명의 학생과 중국불교성지를 순례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하면 박수를 받고,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진정성과 감동은 공덕과 복덕을 불러온다.

무비=요즘 달라이라마 방한모임이 각 지역을 다니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 객관적으로 볼 때 교황과 달라이라마의 인품이나 살아온 경력을 비교할 때 누가 더 훌륭한가. 교황은 알려진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단체가 거대할 뿐이다. 이에 비해 달라이라마는 일찍이 성인(聖人)으로 존경을 받아왔다.

그런데 만약 달라이라마가 한국에 왔을 때 교황에 비해 10 분의 1 의 대접을 받겠는가. 솔직히 살펴야 한다. 어렵도 없다. 과연 10 분의 1 이나 모이겠는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왜 하는가. 나는 반대한다.

지안=외부로 드러내는 행사보다 안으로 정신적인 감화를 미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스트레스가 많다.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서로 밝은 마음으로 대범하게, 넘어가고 털어버려야 한다. <화엄경>에 보면 “보살(菩薩)은 자심광명(自心光明)을 쓴다”고 한다. 자기 마음부터 밝게 갖고, 세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것을 대하는 자세는 밝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비=불교신문도 불교다워야 하고, 불자도 불자다워야 한다. 불교 전체가 불교다워야 한다. 경전에 보면 ‘불재심중(佛在心中) 불재구중(佛在口中) 불재생활중(佛在生活中)’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불교이고, 부처님이다. 불재구중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처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의미다. 결국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인데, 우리 몸으로 생활하는데 불교가 있고, 불교신문이 있고, 불자가 있고, 부처님이 있다. 불자들은 부처님이 자기 자신에 있는 줄 알아야 한다.

지안=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정진해야 한다. 또한 진정성과 감동을 주는 한국불교가 돼야 한다. 을미년 새해에도 무비스님이 더욱 건강하고, 법시(法施)를 더 많이 베풀어 한국불교의 등대가 되어주길 바란다. 무비스님은 우리 종단의 보배이다.

무비=한국불교는 순수불교와 전통불교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한국불교가 돼야 한다. 반야학술상을 제정해 학자들을 지원하는 등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지안스님이 현역에 있으니 한국불교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애틀랜타 붓다나라 불사의 현장



원광 이상연 거사님이 신심을 다해 조성하신 신중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붓다나라 법당에 불단을 비롯해서 신중단까지 갖춰지고 나니 법당이 한 층 장엄해 졌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상단과 마찬가지로 신장님을 모신 신중단도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영가님들을 모시는 영단 조성만 끝나면 상단부터 하단까지 모두 완성되게 됩니다.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붓다나라 도량이 제 자리를 찾아가며 안정되는 모습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도님들의 변함없는 신심과 응원 감사합니다.

☞ 붓다나라 도량에 나무심기 불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붓다나라 사찰에서 사찰 전경에 맞는 나무 시주를 받고 있습니다.

사찰 전면과 주변은 주로 제주 왕벚꽃나무, Dogwood (충충나무), 연산홍; 사찰 주변, 나무와 나무사이 호수와 가까운 쪽은 주로 단풍나무 등이 심어집니다.

동판에 새겨진 동참자 이름은 커가는 나무와 함께 사찰을 장엄할 것입니다.

동참비와 수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제주 왕벚꽃나무 (5 젤런, 높이 6 피트) - \$150, 단풍나무 (7 젤런) - \$100, Dogwood : 핑크색 (5 젤런) - \$100

연산홍 (Rosebud Azalea) 400 그루 시주: 무주상 보시 (보시 완료)

과실수: Fuyu 단감 나무 2 그루, Rainier Cherry 나무 4 그루, 매실나무 2 그루, 대추나무 1 그루

도로 와 사찰 진입로 주변: Blue Rug Juniper 120 그루

☞ 제주 왕벚꽃 나무 시주자 명단 (1 월 1 일 현재까지): 동참하신 분들 나무 식수 완료

1.오원 현일 스님 Bhikkhu Hyunil ; 2. 연암 선각 스님 Bhikkhuni Sungak ; 3. 경자생 상품행 변지연 Ji Yeon Hicks ; 4.병자생 한정언 Jungun Han ; 5. 경진생 장복도 Bokdo Jang ; 6. 병자생 한서경 Seokyeong Han ; 7.기묘생 한주영 Juyoung Han ; 8.갑자생 조민우 Minwoo Cho ; 9.정축생 보리행 서석용 Seokyeong Seo ; 10.을해생 사리자 임명환 MyungWhan Rim ; 11. 이지민 Michelle Jimin Lee ; 12. 이정민 Alice Jungmin Lee ; 13. 손종필 Jongpil Shon ; 14. 손명정 Andrew Shon ; 15. 손선영 Sunyoung Shon ; 16. 남영순 Youngsoon Nam ; 17. 윤철용 Chad Yoon ; 18. Larry T. Owens ; 19. 법계성 Yong Owens ; 20. 갑술생 고미성 Misung Ko ; 21. 경진생 고명섭 Myungseop Ko ; 22. 갑인생 이종철 Jongchul Lee ; 23. 기사생 강미자 Mija Kang ; 24. 병오생 김기환 Kihwan Kim ; 25. 기유생 윤석찬 Sukchan Yun ; 26. 경진생 김동준 Brain Kim ; 27. 경오생 임태윤 Taeyoon Im ; 28. 경오생 임태윤 Taeyoon Im ; (6 그루가 남아 있습니다.)

☞ 단풍나무 시주자 명단 (1 월 1 일 현재까지): 동참하신 분들 나무 식수 완료

1.경진생 한도연 Mary Ann Ha ; 2. 임인생 임지영 Jiyoung Rim ; 3. 경자생 김두철 Doochol Kim ; 4. 을축생 김남균 Lawrance Kim ; 5. 정묘생 김경아 Toni Kim ; 6. 계묘생 진오 임재현 Jaehyun Rim ; 7. 정미생 수연성 삼삼화 Samhwa Kang ; 8. 을해생 임정민 Jenny Rim ; 9. 정축생 임우종 Michael Rim ; 10. 경술생 발심행 임소영 Soyung Rim ; 11. 윤혜림 Hearim Yoo ; 12. Dr. Lisa Hammond ; 13. 신축생 강용택 Yongteak Kang ; 15. 기해생 관음성 강상숙 Sangsook Kang ; 16. 경오생 강정철 Jeong C Kang ; 17. 무인생 강현대 Hyundae Kang ; 18. 기미생 유가연 Gayoun You ; 19. 임오생 인내심 김양한 Yanghan Kim ; (2 그루 남아 있습니다.)

☞ Dogwood (충청나무)시주자 명단 (1 월 1 일 현재까지): 동참하신 분들 나무 식수 완료
 1.심우 임경호 Kyoung Ho Im ; 2. 무술생 이명숙 Myungsook Lee ; (3 그루가 남아있습니다.)
 ☞ 연산홍 (Rosebud Azalea) 400 그루 시주: 무주상 보시 :2015 년 3 월 9 일부터 식수예정

-12 월 넷째주 일요일 송년법회 이모저모-
 붓다나라가 개원하고 다사다난했던 2014 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웃놀이를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참석 못하신 신도님들은 정초기도
 회향날인 2 월 22 일 (음력 1 월 4 일)에 한번 더
 웃놀이가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송년법회 만찬을 위해 특별식: 연소행 손선영
 보살님과 임선경 보살님이 준비한 떡국, 심우
 임경호 거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준비한
 여러가지 음식들, 상품행 변지연 보살님 떡공양,
 윤석찬 보살님 멋진 음식, 회장님 댁, 이호임
 보살님, 총무님, 강태호 거사님, 김태진 거사님
 등이 준비한 특별식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BUDDHANARA TEMPLE (붓다나라) 을미년 정초기도 안내

천 개의 해가 떠서 비추듯
 한없이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
 새해가 열리는 이 아침에 고요히 합장하고,
 저희는 새 모습으로 발원합니다.

무한 공덕의 축복으로 태양은 떠오르고,
 빛나는 생명 지혜, 끝없는 자비 덕성,
 넘쳐 나는 희망과 용기의 햇살이
 찬란히 펼쳐옵니다.

참 생명의 불성 공덕 드러내기 원하오며
 저의 원력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빛내주옵소서.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 속에
 회구하는 착한 일들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5 년 을미년 양띠 새해를 맞이 하여 불자님 가정의 가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며 새해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이하여 미국 붓다나라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는 정초삼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정초 삼일기도- 회향을 일요법회 일정에 맞추다 보니 4 일간 기도합니다. (기도 동참비 \$100.00)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	애틀랜타 붓다나라
양력 1 월 1 일 목요일 - 양력 1 월 4 일 일요일	음력 1 월 1 일(양력 2 월 19 일) 목요일 - 음력 2 월 4 일(양력 2 월 22 일) 일요일

을미년 양띠해에 기도 동참하신 가족들 과 인연있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피와 지혜의 힘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인생의 주인이되는 복락을 누리시길 축원 올립니다.
 마음뉘아 날마다 좋은 날 되시옵고, 소원 성취 하십시오.

☺ BUDDHANARA TEMPLE (붓다나라) 을미년 새해맞이 정초 삼일기도 동참자 명단 -세인트루이스

1.울해생 무량화 문봉순 ; 2. 건명 무신생 선법 조승호, 곤명 임자생 차은주, 장남 신묘생 조현준 ; 3.건명 박영찬, 곤명
 하재숙, 장녀 Soomin Park (박수민) ; 4. 곤명 계사생 김숙향, 차녀 기사생 김정아 ; 5. 건명 병오생 도광 이찬혁, 곤명
 기유생 이은정, 장녀 정축생 이지민, 차녀 이정민 (Alice Jungmin) ; 6. Debra Tak (탁순자) ; 7. Banya Gregory Kilper
 Family ; 8. Simgong Steve Arnett ; 9. 건명 계묘생 고대만, 곤명 병오생 강희경, 장녀 갑술생 고미성, 장남 경진생 고명섭

조카 병자생 김영대 ; 10. 건명 계묘생 김덕호, 곤명 신축생 이병옥, 장남 신미생 김정우, 차남 갑술생 김수우 ; 11. 건명 Carl Graves, 곤명 Yong Graves ; 12. 청신녀 무진생 최춘자, 건명 갑오생 허정석 (Justin J. Hur), 곤명 기해생 김원미 장녀 갑자생 허윤정, 장남 기사생 허정민 ; 13. 건명 관도 민정기, 곤명 법안심 송혜숙, 장남 계유생 민경문 ; 14. 갑오생 배제현, 무술생 최문선, 병인생 배 진, 무진생 배수진, 임신생 배민철 ; 15. 건명 을사생 송 보영, 곤명 을사생 강 효정, 장녀 임신생 송 채원, 장남 계유생 송 지환 ; 16. 건명 병자생 한정언, 곤명 경진생 장복도 ; 17. 건명 정미생 한영택, 곤명 경술생 이현주, 장녀 병자생 한서경, 장녀 기묘생 한주영 ; 18. 건명 신사생 김일권, 곤명 Sandy Kim, 장녀 경술생 Angela Kim, 차녀 계축생 Melissa Kim, 삼녀 무오생 Cassandra Kim, 사녀 신유생 Miranda Kim (이상 18 가족)

☺ 애틀랜타 지역 BUDDHANARA TEMPLE (붓다나라) 올미년 새해맞이 삼일기도 동참은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법회소식 NEWS

- 2015 년 올미년 양띠해 정초 3 일기도 를 봉행 합니다. (기도 동참비 \$100.00)
정초 삼일기도- 회향을 일요법회 일정에 맞추다 보니 4 일간 기도합니다.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 양력 1 월 1 일 목요일 - 양력 1 월 4 일 일요일	애틀랜타 붓다나라 음력 1 월 1 일(양력 2 월 19 일) 목요일 - 음력 2 월 4 일(양력 2 월 22 일) 일요일
--	---

- 애틀랜타 붓다나라 정초 삼일기도는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올미년 정초 삼일기도에 동참하셔서 몸과 말과 그리고 뜻으로 짓는 업장을 소멸해서 의미있고 뜻깊은 양띠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애틀랜타 붓다나라 참선법회를 2015 년 1 월 10 일 토요일 9 시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9 시부터 11 까지 약 2 시간동안 참선, 다도, Q&A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현지인들이 참석하므로 모든 법회 진행은 영어로 합니다. (토요 참선법회가 뿌리를 내리는 데로 화요일 저녁 참선 법회 및 참선 용맹정진도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찰로 문의 바랍니다.)
- 붓다나라가 그동안 애틀랜타 지역에 없었던 관계로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애틀랜타 지역에 사시는 신도님들에게도 매달 소식지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제 2014 년도 10 월에 애틀랜타 지역에도 붓다나라가 창립된 관계로 2015 년도 1 월달 붓다나라 소식지부터는 애틀랜타 지역에 사시는 신도님들에게 발송을 중단합니다. 붓다나라 소식지는 붓다나라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고, 법당에도 상시 비치되어 있습니다. 단 우편으로 발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신도님들은 사찰로 연락 주시면 가정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와 미주리주 지역을 제외한 타 주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붓다나라 소식지를 가정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Grace Sale 안내: 애틀랜타 붓다나라 신도회에서는 그라지 세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 년 3 월 경에 계획하고 있는 Grace Sale 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심행 임소영 총무님께 문의 바랍니다.
- 2015 년도 달력이 사찰에 비치되어있으니 자유로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2015 년도 달력시주 동참을 기다립니다.
-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 모두 건강하게 법회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 (세인트루이스) 과 둘째주 일요일 (애틀랜타)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12 월 인등기도 동참자 :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 법당: 15 번 망숙부 박영국 영가 (행호녀 박수민 복위)

♣애틀랜타 붓다나라 법당: 77 번 갑오생 심우 임경호, 78 번 무술생 이명숙, 79 번 경오생 임태운 .

붓다나라 인등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소원 이루시길 축원 올립니다.

◇ 나무 심기 시주자 명단은 소식지 5-6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2015 년도 달력시주 동참자 : 현심행 김설아, 김숙향, 관음성, Chong Im Sanders

Buddhanara Temple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붓다나라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